

사랑하는 창신성결교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추석명절을 통해 가족들의 온정을 함께 나누시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에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섬김과 나눔을 통해 더 행복하고 풍성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신성결교회 담임목사 이종복 드림

명절에 드리는 예배는
온 집안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차례(茶禮)의 의미와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명절에 드려지는 제사인 차례를 대신하는 의미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 이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과 금년 한 해 동안도 은혜 중에 인도해주심과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초나 향을 피운다거나, 절을 하는 행위 등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 순서의 한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부모나 부모들의 신앙을 함께 연결하고 추모하고 가족 각자의 다짐을 함께 나누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뜻 깊은 일입니다.

추 석 가 정 예 배



2018년 9월 24일(음 8월 15일)



예 수 교
대한성결교회

창 신 교 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5길 22호 www.changshin.org
Tel. 765-6850~3 / Fax. 765-6769

추석 가정 예배

※ 가능하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추석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시 1:1-2** **인도자**

(시 1: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 1:2)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찬송 **559장 (통 305)** **다 같이**

기도 **가족중에서**

성경 **시 128:1-6 (구 p.898)** **인도자**
성경봉독은 다른 분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찬송 **563장 (통 411)** **다 같이**
남성가족들이 특별찬송으로 해도 좋습니다.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 **인도자**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 중 하나는 땅의 소산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땅의 소산이 풍성한 만큼 여름내 땀을 흘린 보람이 있기에 가을은 축복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산은 개인의 삶의 보람과 열매입니다. 우리 가문의 가정마다, 사람마다 열매는 얼마나 맺었을까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은 자신이 땀을 흘린 결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통해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기초적이면서도 분명한 복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릴 복중에 하나는 자신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일, 땀을 흘린 만큼 보상받는 일, 헛수고 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가정의 아내와 아이들을 풍성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비유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그 열매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아내의 하는 일은 살림이며,

이것은 가정을 살리고, 가정의 경제를 살리고, 자녀교육을 통해 인재를 살리는 일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는 가정을 살리는 핵심인물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아내들은 결실한 포도나무입니다. 더 많은 열매로 늘 풍성하기를 기도합시다.

어린 감람나무 같은 아이들은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감람나무는 병충해가 끼지 않아서 병들지 않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음식으로, 기름으로, 약으로 사용됩니다. 잘 자란 감람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그 가정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귀하고도 값진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얻으리라” 이 모든 복은 여호와 경외에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크신 여호와 앞에 작은 나의 모습으로 서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누리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같이 복을 얻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모두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것을 거두는 은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강한 가정, 지금은 어리지만 미래에 큰 나무처럼 자라 가정과 한국 사회와 세계를 이롭게 할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 봅시다.

나눔 **다 같이**

※ 본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느낀 점을 가족끼리 함께 대화해봅시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나눔이 끝나면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1) 우리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2) 앞으로도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찬송 **545장 (통 344)** **다 같이**

축복기도 **다 같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참석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면 됩니다.

주기도문 **다 같이**